한국 불교음악 르네상스를 꿈꾸며…



리더에게 聽 하다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23년. 새로운 모색과 변화를 기대하며 다시 한 시대를 맞는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위한 모색과 변화가 절실한 때라는 점에서 새롭게 맞는 한 시대는 소중한 시간이다. 여전히 힘겨운 숙제와 마주하고 있는 시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공업의 중생을 끌어안고, '중흥'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한국불교는 어떤 모색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문화'가 '시대'라는 점에서 한국불교가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희망을 발원하며 새 시대를 맞는다. 오랫동안 한국 불교음악 발전에 헌신했으며, 한국 불교문화를 넓히는 데 공헌해온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에게 그 길에 대해 물었다. 음악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화가 시대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서 한국불교와 한국 불교음악은 어떤 모색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찬불가는 어디에…

2021년 10월, 박범훈이 원장으로 있는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국·시립합창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립합창단의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 공연에서도 70% 이상의 기독교 곡이 선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시·도립합창단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정기공연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시민을 위한 행사 등 기독교 곡 선정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한 공연에서는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 국립합창단 지방순회공연의 경우 13개 공연 중 7개 도시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100%이거나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사실상 공립합창단에서 특정 종교의 선교공연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종교평화위원회는 "이 같은 편중된 선곡의 요인은 합창단 지휘자들의 종교가 타종교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공립합창단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의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 등 거의 전원이 교회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교평화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특정 종교 편향행위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국·공립합창단의 실태파악과 향후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교육, 예술단 복무규정 강화, 소통 창구 개설 등 다각적인 개선책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가시적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바 있다. 그 지적들 속에는 한국불교가 노력해야 할 문제도 있었다. 타 종교의 적절하지 못한 행정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의 미흡함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었다. 국·공립합창단의 도를 넘은 행보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불교계 역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다.

박범훈 원장은 "수준 높은 찬불합창곡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의 부재, 불교음악 인재양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실을 가속화시켰다"며 "클래식의 범주인 대부분의 합창곡이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곡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1600년 동안 우리 생활과 문화의 근간으로 이어져왔던 불교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음악의 숙제를 현장에서 분명하게 목도했던 박 원장을 2023년 새해에 새로운 이름으로 만난다. 그 이름은 자신이 앞서 언급했던 숙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의 이름으로,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는 필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다.

새 역사, 동국대 한국음악과 신설

조계종립 동국대가 한국음악과 문화재 관련 학과를 신설해 해당 분야의 교육연구 특화에 나섰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된 문화재학과와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는 한국음악과의 운영방향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밝혔다.

2021년 국공립합창단 실태조사 진행
기독교곡 편향 선곡 '선교공연' 목도
"한국 불교음악 활성화 노력도 필요"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로 임명 총괄역

문화재학과는 지난해 첫 입학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한국음악과는 지난해 2월에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제342차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돼,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다. 수시모집의 한국음악과 경쟁률은 15:1이었다.

박 원장이 새롭게 받은 중책은 신설된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다. 한국음악과를 총괄하게 된 박범훈 석좌교수는 당시 간담회에서 "한국음악이 곧 불교음악이지만 불자는 매우 적다. 한국음악과가 설립되면 이제 우리 식구가 될 불교음악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해 개강 준비로 분주한 박범훈 석좌교수를 만났다. 그는 동국대의 한국음악과 신설이 주는 의미에 대해 단순히 학과 하나가 신설되는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과 신설의 가장 큰 취지와 의미가 '인재양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음악과 신설은 앞서 언급한 국·시립합창단의 선교공연으로 인해 지적된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박 석좌교수의 설명이다. 박 석좌교수에 의하면 이번 동국대 한국음악과 신설은 학교뿐만 아니라 종단 차원의 인식 공감에서 시작됐다. 상월결사를 이끌고 있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스님들의 공감과 원력이 모아진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음악과'는 불사라고 할 수 있다.

B2면에 계속

박범훈 석좌교수는…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끈 작곡가 겸 지휘자이다.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과 음악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또한 우리 음악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에 뜻을 두고, 음악과 관련한 철학과 불교연구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휘자와 작곡가로서 86아시안게임 개막식 작곡 및 지휘를 시작으로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등에 참여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아시아민족악단 등을 창단해 인재양성 및 우리 음악 대중화에 기여했다. '붓다' '부처님 오신 날'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수의 찬불가를 작곡했으며, 〈한국불교음악사 연구〉〈작편곡을 위한 국악기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중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한·아세안전통음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청와대불자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조계종 불자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등 다수 수상했다. 현재 불교음악원장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등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5 신년동화 우승미의 '노을씨의 데생'
B19 기획특집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B23 기획특집 불교인문학 살롱